

영미문학연구

안과밖

In/Outside: English Studies in Korea

반년간 2019년 하반기 / 제47호

영미문학연구회

1819년의 영국 피털루와 셸리

| 박찬길 |

1. 피털루학살과 ‘기적의 해’: 1819년의 시대정신

영국역사에서 1819년은 무엇보다 피털루학살(Peterloo Massacre)의 해였다.¹⁾ 그해 8월 16일, 산업도시 맨체스터의 세인트피터 광장에는 수만명의 군중이 모여 의회개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었다. 단 상에는 당시 개혁운동 진영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웅변가’ 헨리 헌트(Henry ‘Orator’ Hunt)가 집회를 주도했고, 6만여명의 군중이 수백명의 사복경찰과 뒤섞인 채 광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시위대 외곽에

朴贊吉 이화여대 영어영문학부, 최근 논문으로는 『『무너진 오두막』의 “더 고요한 공감”: 스토아적 엘레지를 위한 시론』(2018)과 『밀의 ‘정신적 위기’와 워즈워스의 시적 사유』(2019)가 있다.

1) 피털루(Peterloo)는 물론 세인트피터 광장(St. Peter’s Field)에서 벌어진 워털루(Waterloo)전투라는 냉소적인 취지로 만들어진 말이다. 피털루학살에 관한 가장 권위있는 연구는 여전히 톰슨(E. P. Thompson)의 *The Making of the English Working Class* (New York: Vintage Books, 1966)다. 톰슨은 이 책의 669~700면에서 피털루학살을 상세히 다루고 있는데, 그는 이 사건이 “진짜 학살”(685면)이었고, “계급 간의 전쟁”(686면)이었으며, 영국사의 향방을 가르는 “형성적 경험”(a formative experience, 687면)이었다고 규정했다. 최근에는 피털루 200주년을 기념하여, 풀(Robert Poole)이 그간의 연구성과를 총결산하는 *Peterloo: The English Uprising* (Oxford: Oxford UP, 2019)을 출간하기도 했다. 오래된 글이지만 워커(A Stanley Walker)의 논문도 피털루학살의 과정을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다. A. S. Walker, “Peterloo, Shelley and Reform,” *PMLA: Publications of the Modern Language Association of America* 40.1 (1925) 128~64면.

는 진압병력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경기병 6개 중대, 대포 2문으로 무장한 기마포병부대, 제31 보병여단 등 위털루전투에 참가했던 정규군이었고, 그 앞에는 인근 지역의 부유한 자영농(Yeoman)의 자제들로 이루어진 수백명의 기마의용병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정규군의 일부는 위털루전쟁에서 땀뻣한 훈장을 달고 있었고, 기마의용병 중 상당수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모여 있는 군중들과 진압병력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이 감돌았으며, 단상에 있던 힌트는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군중들에게 이들을 “환영”하는 박수를 세 차례나 유도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군중들은 군인들의 당당한 형세에 감탄할 뿐, 이들이 자신들을 직접 공격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영농 기마의용병들은 “계급적인 증오심”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적개심으로 무장한 채 군중들 속으로 돌진하여 주변의 군중들을 마구잡이로 베기 시작했다.²⁾ 경찰은 힌트를 비롯한 시위 지도부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지만 의용병들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고, 집회현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다. 사상자에 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지만 사건 직후에 이를 보도한 지역신문 『옵저버』(*Observer*)에 따르면 최소 9명이 사망했고, 418명이 부상했으며, 부상자 중 108명이 여성이었다.³⁾ 집회군중에 대한 이러한 참혹한 학살은 개혁운동에 대한 탄압의 역사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참사였고, 불과 4년 전에 활약했던 위털루전투의 ‘영웅’들이 여기에 동원되었다는 점에서 더 큰 충격을 주었다.

또한 영국의 1819년은 문학사적으로도 충분히 기억할 만한 시점이다. 1819년은 이른바 2세대 낭만주의 시인들의 작품활동이 특별하게

2) Thompson, 앞의 책 686면.

3) 피털루학살의 사상자 통계는 연구마다 다르다. 가장 최근에 나온 폴의 연구에서는 사망자 18명, 심각한 부상자만 거의 7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Poole, 앞의 책 22면.

왕성했던 ‘기적의 해’(annus mirabilis)였기 때문이다. 바로 그 한해 동안 셸리(Percy Bysshe Shelley)는 『풀려난 프로메테우스』(*Prometheus Unbound*)의 2~3막, 『첸치가문』(*The Cenci*), 「서풍에게 바치는 송가」(“Ode to the West Wind”)를 썼고, 바이런(George Gordon Byron)은 『돈 후안』(*Don Juan*)의 1~2권을 출판했으며, 키츠(John Keats)는 그의 유명한 송가들(Odes), 「성 아그네스 축일 전날 저녁」(“The Eve of St. Agnes”), 『레이미아』(*Lamia*), 「냉정한 미인」(“La Belle Dame Sans Merci”), 두 판본의 「하이페리온」(“Hyperion,” “The Fall of Hyperion”) 등 우리가 기억하는 그의 대표작 대부분을 써냈다. 1819년의 영국에는 무슨 사연이 있었기에 이들 모두가 그토록 놀라운 시적 생산력을 발휘했던 것일까?

『1819년의 영국』(*England in 1819*)의 저자 챈들러(James Chandler)는 그 시점의 영국에 매우 독특한 “문학적 문화”(literary culture)가 있었음을 지적한다. 챈들러는 1819년의 영국에서 이루어진 문학적 자기 표현에는 어떤 핵심적인 “정치적” 힘이 있었다고 봤고, 이 시기의 비범한 문학적 생산력은 바로 그것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했다.⁴⁾ 챈들러의 주장은 대체로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말하는 “정치적” 힘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문학적 생산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지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는 것 같지는 않다. 챈들러가 이 책에서 진짜로 의도하는 것은 ‘1819년의 영국’의 어떤 측면을 역사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1980년대 미국의 영문학계에 다시 등장한 역사주의적 비평을 ‘역사화’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챈들러의 관심은 전통적인 역사주의와 탈구조주의를 포괄하는 새로운 역사주의적 비평을 방법론적으로 실험하는 것이었고, 그만큼 1819년 당시의

4) James Chandler, *England in 1819: The Politics of Literary Culture and the Case of Romantic Historicism* (Chicago: The U of Chicago P, 1998) 45면.

“문학적 문화”를 그 자체로 해명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1980년 초반의 영문학 연구의 지형에서 역사적으로 바라보는 ‘방식’을 탐구하는 일에 치우쳐 있다고 할 수 있다.⁵⁾

따라서 ‘1819년의 영국’의 역사적이고 동시에 문학적인 의미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1825년에 출판된 해즐릿(William Hazlitt)의 책 제목 『시대정신』(*The Spirit of Age*)에 주목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해즐릿이야말로 당시 그렇게 기적적인 문학적 창조력을 보인 시인들을 개인적으로 다 알았고, 그들 모두를 움직였던 어떤 공통적인 시대적 분위기, 즉 챌들러가 말하는 당대의 “문학적 문화”를 자기 나뉠름으로 체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⁶⁾ 해즐릿은 “시대정신”이 무슨 뜻인지 이 책에서 직접 설명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보다 조금 먼저 나온 「증오하는 것의 즐거움」(*On the Pleasure of Hating*)에서 그가 생각하는 당시의 ‘시대정신’을 “인간이 자연히 가지고 있는 결점들에 맞서 싸우면서, 지성적으로 발전해나가는 것”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⁷⁾ 아마도 해즐릿은 전통과 관습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계몽주의적 역사의식이 점점 성장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다. 이것도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것만으로 1819년을 온전하게 이해하기에는 여전히 미진하다. 이보다는 차라리 1831년 1월 9일과 23일자 『이그재미너』(*The Examiner*)에 실린 밀(John Stuart Mill)의 설명이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다.

이 시대의 현저한 특징들 중 하나는 이 시대가 전환의 시대라는 점

5) Harriet Kramer Linkin, “Historicizing Romantic Historicism,” *Clio* 28.2 (1999) 189~99면.

6) 이 시기의 독특한 “문학적 문화”를 당대의 자료를 통해서 상론한 최근의 연구로는 Richard Cronin, *Paper Pellets: British Literary Culture after Waterloo* (New York: Oxford UP, 2010)가 있다.

7) Patrick Story, “Hazlitt’s Definition of the Spirits of the Age,” *The Wordsworth Circle* 6.2 (Spring 1975) 97면.

다. 인류는 구제도들과 구이념들을 넘어섰지만, 아직 [그것을 대처할] 새로운 것들을 얻지 못했다. (...) 세속적인 권력은 인류 중 보수적인 사람의 손을 떠나 진취적인 사람들의 손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그러한 혁명은 사람들의 목숨이나 재산을 빼앗아가지는 않겠지만, 앞으로는 어느 누구에게도 정당하게 얻지 않은 특권이나 지위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⁸⁾

밀에 따르면 당대의 ‘시대정신’은 보수가 아니라 진보를 지향하며, 이를 위해서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혁명”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혁명은 폭력을 수반하거나 급진적인 공산화가 아니라 오로지 본인의 노동이나 재능에 의해서만 특권과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을 뜻한다. 밀의 주장은 해즐릿의 계몽주의적 역사의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제3차 선거법개정⁹⁾ 바로 전에 나와서인지 내용적으로는 해즐릿의 주장보다 더 구체적이고 급진적임에도 불구하고 표현에서 느껴지는 급박감은 훨씬 덜하다. 이 글이 나온 시점보다 11년 앞선 1819년의 상황을 좀더 정확하게 묘사하기에는 밀의 “시대정신”을 “[나뿔레옹전쟁 이후에 찾아온] 국제적 평화가 다시 일깨운 진보에 대한 기대감의 파도와 이에 반대하는 기존 제도들의 반동 사이에 벌어진 극심한 갈등의 과도기적 과정”¹⁰⁾이라고 다시 설명한 스토리(Patrick Story)의 표현이 더 적절해 보인다.

사실 영국에서 “진보에 대한 기대감”이 촉발된 결정적 계기는

8) John Stuart Mill, “The Spirit of Age,” *The Emergence of Victorian Consciousness: The Spirit of the Age*, ed. George Levine (New York: Free Press, 1967) 73, 85면.

9) 1790년대 이후 여러 형태로 제기되었던 선거법개정 요구를 최초로 수렴한 제3차 선거법개정안(Third Reform Bill)은 1832년 6월 7일에 국왕의 승인을 거쳐 법(Act)이 되었다. <https://www.britannica.com/event/Reform-Bill> 참조.

10) Story, 앞의 글 98면.

1819년보다 훨씬 이전에 시작된 프랑스혁명이었고, 에이브럼스(M. H. Abrams)가 지적하듯 그때 영국사회에 불러일으켜진 “진보에 대한 기대감”이야말로 1790년대의 “시대정신”이었다.¹¹⁾ 바로 이때의 “시대정신” 안에서 버크(Edmund Burke)와 페인(Thomas Paine)의 ‘혁명논쟁’이 전개되었으며,¹²⁾ 그러한 ‘혁명논쟁’의 끝자락인 1798년에 영국 낭만주의 문학운동의 시원이라고 할 만한 워즈워스(William Wordsworth)와 코올리지(Samuel Taylor Coleridge)의 『서정담시집』(*Lyrical Ballads*)이 산출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러한 “진보에 대한 기대감”은 『서정담시집』을 생산한 바로 그해에 갑자기 결정적인 파국을 맞았고 그 계기는 영국 안팎에서 거의 동시에 주어졌다. 1798년 1월에 있었던 나뵐레옹의 스위스침공으로 영국의 진보적 지식인들은 나뵐레옹이 더이상 혁명의 수호자가 아니라 제국주의적 정복자임을 자각했고, 이것은 혁명의 정당성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붕괴시켰다.¹³⁾ 영국정부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런던통신협회(London Corresponding Society)를 비롯한 개혁운동 조직들의 지도부를 일제히 검거했고, 그 결과 1790년대 내내 지속되었던 영국의 개혁운동은 완전히 꺾이졌다.¹⁴⁾ 따라서 그 이후 영국의 개혁운동은 1815년에 나뵐레옹이 실각하고 22년간 지속되었던 영불전쟁이 종식될 때까지 제대로 된 사회적 발언권을 갖기 어려웠다.

전쟁을 수습하기 위한 빈협약(Congress of Vienna)을 통해 영국, 오

11) M. H. Abrams, “English Romanticism: The Spirit of The Age,” *Romanticism: Points of View*, ed. Robert F. Gleckner (Detroit: Wayne State UP, 1975) 316~19면.

12) Marilyn Butler, *Burke, Paine, Godwin, and the Revolution Controversy* (Cambridge: Cambridge UP, 1984) 1~17면 참조.

13) J. C. Maxwell, “Wordsworth and the Subjugation of Switzerland,” *Modern Language Review* 65 (1970) 16~18면.

14) Alfred Goodwin, *The Friends of Liberty: The English Democratic Movement in the Age of the French Revolution* (Cambridge, Mass.: Harvard UP, 1979) 451~99면 참조.

스트리아, 러시아 등 승전국들이 새로이 만들어낸 유럽의 정치적 지형은 한마디로 기존의 군주제를 중심으로 한 구체제의 복귀였다. 그리고 그것은 당대 유럽의 현실정치에서 공화주의가 패배했음을 의미했다. 승전국이었던 영국은 대외무역을 위한 제해권을 확립하고 새로운 식민지를 획득하는 등 향후 강력한 제국주의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이때 마련했지만,¹⁵⁾ 종전이 영국의 국내정치에 초래한 상황은 보수세력의 최종적인 승리가 아니라 오히려 “진보에 대한 기대감”의 재점화였다. 종전은 영국 내에서 경제적 변영과 사회적 갈등의 완화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반대로 워털루의 승리로 고무된 지배층과 오랜 전쟁으로 피폐해진 민중 간의 계급적 대립을 더 격화시켰다.¹⁶⁾ 영국 내에서는 새로운 기계의 도입으로 인해 가내수공업의 기반으로 하는 직조산업이 큰 타격을 받았고, 그 결과 1811년부터 이른바 기계파괴운동(The Luddites)이 전개되었다.¹⁷⁾ 곡물의 가격과 노동자의 임금을 연계시키는 스펜햄랜드(Speenhamland)제도의 확산으로 노동계급의 저임금이 고착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1815년 종전과 함께 통과된 새로운 곡물법(Corn Law)에 따라 높은 곡물가격이 유지됐으며, 그 결과 민중의 가난은 더욱 심화됐다. 게다가 종전과 더불어 군수산업의 수요가 급감했고, 해외에서 돌아온 20만명 가까운 제대군인들이 노동시장에 투입됨으로써 임금의 저하도 불가피해졌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전후 영국사회의 계급적 갈등은 나날이 격화되었으며, 가난에 피폐해진 민중과 선거권이 없는 중간계급은 집회와 시위를 통해 지배층에 압력을 가했다. 워털루의 역사적인 승전으로 고무된 지배계급은 이러

15) Rebecca Fraser, *The Story of Britain: From the Romans to the Present: A Narrative History* (New York: W.W. Norton & Co., 2003) 509면.

16) John Stevenson, *Popular Disturbances in England 1700-1870* (New York: Longman, 1979) 205~28면.

17) 같은 책 155~62면.

한 아래로부터의 도전을 수용하기는커녕 더욱더 가혹한 탄압으로 대응했으며, 이것이 밀이 파악한 “시대정신”의 내용, 즉 계급 간의 “극심한 갈등의 과도기적 과정”이었다.¹⁸⁾

밀이 지목한 이 시기의 “시대정신”, 즉 “진보에 대한 기대감”과 “기존 제도들의 반동” 사이의 갈등은 종전 직후부터 점차 격화되다가 1819년의 한 시점에 정점에 도달한다. 그 정점은 물론 8월 16일에 발생한 피털루학살이었다. 두 진영 사이의 이러한 갈등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개혁운동가(reformer)들이 주도하는 조직활동을 통해 표현되었다. 당시의 개혁운동가들은 대개 버넷(Francis Burdett), 헌트(Leigh Hunt)와 같은 도시중심의 지식층과 코벳(William Cobbett)과 ‘웅변가’ 헨리 헌트 같은 농촌중심의 운동가들로 구분되었는데, 전자는 선거권의 확대와 같은 정치제도적 문제를 다루는 데 더 집중했고 후자는 자기 지역의 당면과제들, 즉 임금과 곡물가격 등 민중의 경제적 문제를 더 우선적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었다. 이 두 부류는 때로는 독자적으로, 때로는 협력하면서 “진보에 대한 기대감”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각자의 영역에서 전개했다.¹⁹⁾ 이 시기에 영국 전역에서 벌어졌던 개혁운동들의 다양한 양상을 모두 소개하는 것은 이 글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일이다. 다만 피털루학살이 일어났던 1819년 8월 16일의 집회는 헨리 헌트를 중심으로 한 지역운동가들이 그동안의 집회들을 통해 축적한 역량을 최대한으로 집중시켜 조직한 거사였다는 것, 그리고 이를 간파한 맨체스터 사법당국 역시 치밀한 사전준비와 계획을

18) Fraser, 앞의 책 507~13면.

19) 위털루 이후 이 시기까지 영국의 급진주의와 개혁운동가에 관해서는 D. G. Wright, *Popular Radicalism: The Working-Class Experience, 1780-1880* (London and New York: Longman, 1988)의 4장 64~82면 참조. 이 시기 셸리의 입장을 당대의 대표적 개혁운동가들의 노선과 비교한 자료로는 Kenneth Neill Cameron, “Shelley and the Reformers,” *ELH* 12.1 (1945) 62~85면 참조.

거쳐 매우 의도적으로 전례 없는 학살을 감행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피털루가 1810년대의 시대정신, 즉 “진보에 대한 기대감”과 “기존 제도들의 반동” 사이의 갈등이 절정에 도달해 폭발적으로 분출된 사건이었다는 뜻이다.²⁰⁾

이러한 뜻에서 우리는 1790년대에 일어난 개혁운동의 도도한 물결이 1798년에 갑작스러운 파국을 맞으면서 동시에 영국 낭만주의 운동의 기념비적 저작이 이루어진 것과 1815년 워털루의 승전 이후 다시 물려온 개혁운동의 두번째 부흥기가 피털루와 함께 갑작스럽게 종식되면서 2세대 낭만주의자들의 걸작들이 쏟아졌다는 것 사이에 일정한 유비관계를 상정할 수도 있겠다. 다시 말하면 진보와 보수의 격렬한 대립, 그리고 이어지는 진보의 갑작스럽고 극적인 패배가 1790년대와 1810년대 영국역사에 반복적으로 나타난 ‘시대정신’의 표현이었다면, 바로 이러한 ‘시대정신’이 챌들러가 말한 “문학적 문화”를 뒷받침한 “정치적 힘”의 실체였다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주장은 매우 보편적인 문학사적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영국 낭만주의 문학은 누가 봐도 프랑스혁명의 ‘실패’에 대한 좌절감을 주된 배경으로 삼았고, 그러한 ‘실패’를 문학적 상상력으로 보상하겠다는 것이 낭만주의 시인들의 공통된 인식이었기 때문이다.²¹⁾ 물론 1819년에 출판된 작품들을 모두 개혁운동의 산물로 간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키츠에게 1819년은 진정으로 ‘기적의 해’였다고 말하기에 부족함이 없지만, 그의 작품을 아무리 ‘역사화’시켜 읽는다고 해도²²⁾ 그 창작되거나 작품의 내용을 감안할 때 당시의 개혁운동과 직접 연관시키는 것

20) R. J. White, *Waterloo to Peterloo*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68).

21) Abrams, 앞의 글 314~30면.

22) 가령 로(Nicholas Roe)가 편집한 책 *Keats and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P, 1995)가 그 예다.

은 무리한 일이기 때문이다. 바이런을 비롯한 다른 헌트 그룹의 시인들도 분명히 앞서 언급한 ‘시대정신’을 공유했지만, 그렇다고 그 작품들의 내용이 그들의 정치적 입장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아니었다.²³⁾ 하지만 셸리의 경우는 좀 특별했다. 셸리는 영국의 개혁운동이 활기를 되찾는 1810년대에 시를 쓰기 시작했고, 또 그때부터 꾸준히 당시의 가장 첨예한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정치산문으로 써왔다.²⁴⁾ 뿐만 아니라 당시 개혁운동의 중요한 한 축이었던 리 헌트의 추천으로 문단에 등장했으며, 그의 모든 시 창작은 실제적으로든 상상 속에서도 그 나름의 정치적 실천이었다고 볼 수 있다.²⁵⁾ 셸리는 피털루학살이 일어났을 때 이딸리아 리보르노에 머물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사건을 전해 들은 직후에 「혼돈의 가면극」(“The Mask of Anarchy”)을 곧바로 집필했으며, 그로부터 3개월 후에 그 시의 자매편이라 할 만한 정치산문 「개혁에 관한 철학적 견해」(“A Philosophical View of Reform”)를 썼다.²⁶⁾ 비록 이 산문이 세상에 나오기까지는 100년을 기다려야 했지만, 셸리는 피털루학살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으로서 이 작품들을 썼고

23) Jeffrey N. Cox, *Poetry and Politics in the Cockney School: Keats, Shelley, Hunt, and their Circle* (Cambridge: Cambridge UP, 2004) 16~37면 참조. 리 헌트 그룹의 특징이 키츠 시에 반영된 부분에 관한 설명으로는 이 책의 3장 “John Keats, Coterie Poet” 82~122면 참조.

24) Michael Scrivener, “Politics, Protest, and Social Reform: Irish Pamphlets, ‘Notes to Queen Mab,’ Letter to Lord Ellenborough, A Philosophical View of Reform,” *The Oxford Handbook of Percy Bysshe Shelley*, ed. Michael O’Neill, Anthony Howe, and Madeleine Callaghan (Oxford, England: Oxford UP, 2013) 163~76면.

25) 셸리의 진보적인 정치관과 시적 실천 사이의 관계에 관해서는 Michael Henry Scrivener, *Radical Shelley* (Princeton: Princeton UP, 2016)와 Yasmin Solomonescu, “Percy Shelley’s Revolutionary Periods,” *ELH* 83.4 (2016) 1105~33면 참조.

26) 이 글에서는 「혼돈의 가면극」의 원문을 Percy Bysshe Shelley, *Selected Poems and Prose*, ed. Jack Donovan and Cian Duffy (London: Penguin Books, 2016) 421~33면, 「개혁에 관한 철학적 견해」의 원문을 Percy Bysshe Shelley, *The Complete Works of Percy Bysshe Shelley* 7, ed. Roger Ingpen and Walter E. Peck (London: Ernest Benn, 1965)에서 가져왔다.

그것은 망명객 시인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현실참여였다고 할 수 있다.²⁷⁾ 셸리에게 시인은 좁은 의미의 문학의 테두리를 훨씬 뛰어넘는 존재였고, 시적 창작과 정치적 참여는 처음부터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²⁸⁾ 1년 남짓 사이를 두고 쓰인 두 산문은 그 목적과 제재를 달리하지만 두 글에 깔려 있는 시적이고 정치적인 신념은 거의 동일했다. 피털루가 일어났던 1819년이 당대의 ‘시대정신’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난 해였다면, 그리고 바로 그 ‘시대정신’은 영문학의 ‘기적의 해’를 만든 가장 중요한 “정치적 힘”이었다면, 그러한 연관관계를 가장 명확하게,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시인이 바로 셸리였다고 할 수 있다.²⁹⁾ 셸리는 1810년대 영국의 ‘시대정신’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스스로 그 일부가 되고자 했으며, 그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1819년의 역사적 의미를 환기시켜주는 가장 좋은 문학적 색인(索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셸리의 「혼돈의 가면극」과 「개혁에 관한 철학적 견해」, 그리고 같은 시기에 쓰인 짧은 시 「1819년의 영국」을 분석하면서 학살과 기적의 해였던 1819년에 가장 치열하게 분출된 ‘시대정신’의 ‘내용’을 오늘의 눈으로 재구성해보고자 한다.

27) 이 시기 셸리의 행적에 관해서는 Michael O'Neill, *Percy Bysshe Shelley: A Literary Life* (Basingstoke: Macmillan, 1989) 93~124면 참조.

28) Chris Foss, "Toward an Imaginative Politics: The Convergence of Theory and Practice in A Philosophical View of Reform," *A Brighter Morn: The Shelley Circle's Utopian Project*, ed. Darby Lewes (Lanham, MD: Lexington, 2003) 41면 참조.

29) 이 시기 셸리의 입장을 “시대정신”과 관련하여 설명한 자료로는 Malini Bhattacharya, "Shelley on the 'Spirit of the Age'," *Journal of the Department of English* 17.1 (1981) 40~53면 참조.

2. 「혼돈의 가면극」³⁰⁾

이 시에는 “맨체스터에서의 학살이 계기가 되어 쓰임”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을 정도로 그 창작의 목적이 분명하다. 이탈리아에 살고 있던 셸리는 1819년 9월 5일에 피콕(Thomas Love Peacock)의 편지를 통해 피털루의 소식을 들었으며, 진보적 지식인이자라면 누구라도 그랬듯이 “분노와 동정의 격렬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셸리는 “분노가 여전히 뿔출 속에 들끓고 있는 가운데” 즉각 이 시를 집필하기 시작했고, 메리 셸리(Mary Shelley)는 원고가 완성되자마자 리 헌트에게 송부했다. 하지만 헌트는 당시의 정치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출판을 보류했고, 1832년이 돼서야 이 시를 공개했다.³¹⁾ 하지만 셸리는 그 이후에도 “직접적으로 개혁운동가들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이 시를 출판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³²⁾ 이것을 보면 당시의 셸리가 비록 망명객의 입장이었지만 얼마나 영국의 개혁운동에 직접 관여하고자 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³³⁾ 따라서 이 시에 곧바로 시위현장의 구호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내용들이 들어 있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후렴처럼 반복되는 다음과 같은 연이다.

잠에서 깨어난 사자들처럼 일어나라
제압할 수 없이 많은 숫자로.
그대들을 움아맨 사슬을 대지에 떨쳐버려라
잠든 사이 슬며시 내려앉은 이슬을 떨쳐내듯이.

30) 이하 본문에서는 「가면극」으로 칭하고, 이 시를 인용할 때는 괄호 안에 행수만 표기함.

31) O'Neill, 앞의 책 102면.

32) Kenneth Neill Cameron, Shelley: *The Golden Years* (Cambridge, MA.: Harvard UP, 1974) 342면.

33) Walker, 앞의 글 157~61면 참조.

그대들은 많고, 그들은 적다.

(151~55행, 372~76행)

셸리는 전례없이 야만적인 학살을 당한 영국민들에게 겁먹지 말고 봉기할 것을 선동하고 있다. 이 대목만 놓고 보면 민중들의 ‘봉기’를 ‘선동’하는 것이 맞다. 비록 당장에는 수백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일방적으로 당한 것 같지만, 민중들이 각성되기만 한다면 “잠에서 깨어난 사자들처럼” 용맹해질 수 있고, 또 수적으로도 진압군을 압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시는 셸리의 바람처럼 피털루의 민중들에게 직접 전달되지는 못했지만, 훗날 차티스트(Chartist)를 포함하여 많은 노동운동가들 사이에서 일종의 로고송(logo song)처럼 활용된다. 하지만 이 시 전체의 맥락에서는 그 정치적 메시지가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시는 크게 세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부분에는 “가면극”이라는 제목에 걸맞게, 가면극(Masque) 또는 반가면극(Anti-Masque)에서 볼 수 있는 알레고리적 인물들이 차례로 등장한다. 당시 영국정부의 주요 인물들, 즉 외무장관 캐슬러리(Castlereagh), 대법관 엘던(Eldon), 내무장관 시드머스(Sidmouth) 등이 실명으로 등장하고 이들이 각각 살인·사기·위선을 상징하는 알레고리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혼돈”(Anarchy)은 그러한 인물들 중 우두머리 격인데, 죽음을 상징하는 인물이고, 곧 조지 4세(George IV)로 즉위하게 될 섭정 왕자(Prince Regent)를 지칭한다. 이들의 절망적인 행진은 “희망”이라는 이름의 “미친 처녀”(a maniac maid)가 가로막으면서 중단되는데(86행), “혼돈”이 “살인” “사기”와 함께 그녀를 깔아뭉개려는 순간 그들 앞에 갑자기 “안개”(a mist, 103행)가 피어나 이들을 저지한다. 이 “안개”는 다시 “독사보다 더 빛나는 비늘로 둘러싸인 어떤 물

체”(110~11행)로 자라나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물체의 머리 위로 새벽별이 진홍빛 이슬비 같은 광채를 내리비춘다(115~17행). 그 광채의 발길이 바람처럼 부드럽게 사람들 머리 위를 스치면, 오월의 봄기운에 꽃봉오리가 터지듯 사람들의 “생각들”(Thoughts, 125행)이 일깨워지고, 그 결과 “희망”은 다시 일어나 걸으며, “혼돈”과 그 족속들은 “죽음의 말”(The Horse of Death, 132행)에 밟혀 먼지가 되고 만다. 그리고 그 막바지에 “기쁨과 두려움의 이 말들”(These words of joy and fear, 138행)이 들려오는데, 이것은 피털루에서 흘린 민중들의 피를 머금은 대지가 영국인들에게 외치는 소리이며, “이 말들”의 내용이 바로 앞에서 인용된 대목이다. 사실 이렇게 거칠게 요약하는 것은 피털루학살을 일으킨 당시 상황에 대한 셸리의 정확한 통찰과 그것을 형상화하기 위한 문학적 장치들(가면극과 알레고리)의 정교한 효과를 제대로 보여줄 수 없다.³⁴⁾ 하지만 죽음의 가면무도회가 “희망”을 짓밟는 순간, “안개”가 피어나서 “생각들”을 일깨우고 그것이 결국 “희망”을 되살릴 뿐만 아니라 “혼돈”과 그 족속들이 “죽음의 말”에 밟혀 “먼지”가 되어버린다는 “가면극”의 ‘내용’은 뜬금없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deus ex machina)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없지 않고, 일종의 ‘결론’으로 제시되는 정치적 메시지의 진정성과 현실적합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면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셸리의 정치적 입장을 고드윈(William Godwin)의 철학적 급진주의와³⁵⁾ 유토피

34) 「가면극」의 ‘가면무도회’로서의 시적 효과를 자세히 분석한 글로는 Lisa Vargo, “Unmasking Shelley’s Mask of Anarchy,” *English Studies in Canada* 13.1 (1987) 49~64면; Kim Jacobs-Beck, “Pageant and Parade: Imperial and Populist Performance in Percy Shelley’s Mask of Anarchy and Swellfoot the Tyrant,” *Interdisciplinary Humanities* 31.2 (2014) 17~32면 참조.

35) Seth T. Reno, “The Violence of Form in Mask of Anarchy,” *Keats-Shelley Journal: Keats, Shelley, Byron, Hunt, and Their Circles* 62 (2013) 93~94면.

아직 문학주의로³⁶⁾ 성급하게 단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 시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면극’은 여기서 종결되지만, ‘가면극’보다 더 긴 분량의 ‘본론’이 바로 여기부터 시작된다.³⁷⁾

「가면극」 전체를 놓고 보면, 진짜 ‘가면극’이 나오는 155행까지는 일종의 ‘서론’에 불과하고, ‘본론’은 그다음에 나오는 부분, 즉 앞에서 일깨워진 “생각들”(125행)의 내용을 별다른 문학적 장치의 개입 없이 시인이 직접 말하는 부분이다(156~363행). 마치 세인트피터 광장에서 헨리 헛트가 맨체스터의 노동자들에게 연설했던 것처럼 셸리는 “시적 환영”(the visions of Poesy, 4행) 안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개혁과 혁명이 무엇인지를 영국의 민중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것이다.

셸리의 ‘시적 연설’은 크게 세부분으로 나뉜다. “자유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으로 시작하는 첫부분(155~212행)은 사실 자유가 아니라 영국의 민중들이 처해 있는 “노예상태”(Slavery)에 대한 분석이다. 말하자면 앞의 ‘가면극’에 나왔던 엘턴의 “사기”와 시드즈의 “위선”이 어떻게 영국민중들을 속여서 “노예상태” 속에 머물도록 하는지를 폭로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은 민중들이 지금 겪는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원론적으로 설명해보겠다는 것이다. 놀라운 것은 셸리가 여기서 보

36) Foss, 앞의 글 47면.

37) 민병천은 이러한 “문체와 어조의 단절”이 「가면극」의 구조적인 모순이며, 이것이 이 시의 “모호성”을 불러일으킨다고 비판했다. 민병천 「정치적 의제로서의 사유와 소통의 장의 실현: 셸리의 “혼돈의 가면극 읽기”」, 『영어영문학』 56.4 (2010) 667~90면. 민병천의 이러한 비판은 이 시의 예술적 비전과 실용적 정치학이 구조적인 모순관계에 있으며 이것이 셸리의 자위적 시적 환상(the poetic self-service of Shelley’s fantasy)이라는 윌프슨(Susan Wolfson)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인데, 레드필드(Marc Redfield)는 오히려 그러한 ‘모순’이야말로 셸리의 정치적 시학의 핵심이라고 반론한다. Marc Redfield, “Mask of Anarchy: Shelley’s Political Poetics,” *Bucknell Review: A Scholarly Journal of Letters, Arts and Sciences* 45.2 (2002) 102~10면 참조. 필자는 이러한 “단절”이 이 작품의 시적·정치적 의미를 모호하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오히려 먼저 제시된 “가면극”에 대한 작품 내의 주석(gloss)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시인의 정치적 메시지를 더 선명하게 전달하는 문학적 장치로 기능한다고 본다.

여주는 당대 사회에 대한 분석이 철학적 급진주의나 유토피아적 문학
주의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정확한 사회과학적 통찰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자기가 말하는 “노예상태”를 이렇게 설명한다.

그것은 그대의 팔다리에
하루하루 견딜 만큼의 힘만
채워주는 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이다.
오로지 폭군들의 편익을 위해 감옥에 갇혀 사는 것처럼.
(160~63행)

셸리는 여기서 자신이 새롭게 목도하고 있는 산업노동자들의 임금이
어떤 원칙으로 정해지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
동자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해서 가치를 생산하지만, 그렇게 사용
된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양만큼의 가치만 자신의 임금으로
받아갈 뿐 나머지 가치는 모두 자본가의 이윤, 즉 “폭군들의 편익”이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노동과 임금에 대한 자본주의적 원리를 이해하
지 않고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분석이다. 셸리는 이 밖에도 채권과 어
음 등을 화폐처럼 사용하는 자본주의 신용경제의 원리를 비판한다거
나(176~79행), 의회정치에 노동자들의 정치적 의지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184~87행) 자신의 사회적 인식이 당
대의 구체적 현실로부터 유리된 순진한 문학적 환상에 불과하다는 의
심을 불식시킨다.

셸리의 상상적 연설의 두번째 부분(213~65행)은 개혁운동의 근본적
목표, 즉 개혁을 통해 확보하고자 하는 “자유”의 실체에 관한 것이다.
셸리는 자유를 빈자나 부자를 똑같이 보호하는 (사법적) “정의”(234행)
로, 타락한 제도종교가 허락하지 않는 “지혜”(238행)로, 민중의 피를 요

구하지 않는 “평화”(242행)로 정의하지만,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자유에 대한 경제적 정의다.

노동자들에게 자유란 빵이다.
하루의 노동을 마치고 돌아와
깔끔하고 단란한 집에서 마주한
단정하게 차려진 저녁상이다.

(221~24행)

셸리는 국회의원의 아들이었고, 금방 쫓겨나긴 했지만 대학에 몸을 담았던 지식층이었다. 개혁운동가로서도 노동계급 중심의 햄프던클럽(The Hampden Club)보다는 리 헌트나 버넷 같은 도시중심의 중산층 지식인 노선에 더 가까웠던 사람이다.³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셸리가 적어도 이 대목에서 보여주는 “자유”의 핵심은 가난으로부터의 해방, 즉 경제적 정의의 실현이었다.³⁹⁾

셸리가 ‘본론’의 세번째 부분(266~363행)에서 제시하는 것은 저항의 방법론이다. 아무리 피털루학살에 분개하여 쓴 시라고는 하지만 ‘가면극’이라는 전통적인 양식을 가진 시에서 향후 저항의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 시가 엄청난 학살극을 직접 경험한 민중들에게 지속적인 저항과 투쟁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만큼, 그러한 최악의 폭력에 대처하는 방식에 대해 셸리 자신의 입장을 어느정도 밝히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셸리는 무엇보다 피털루에서와 같은 광장의 정치, 즉 공개된 공간에서의 대중시위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영국의 땅 어디에서든 “두려움 없

38) Cameron, “Shelley and the Reformers” 70~74면 참조.

39) 같은 글 73면.

는 자, 자유로운 자들이 모여 대규모 집회”(267~68행)를 계속 열어서,
하늘과 땅이 그 “장엄한 광경”(the solemnity)을 목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또 그렇게 공격하면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들이 찬 장검이
마치 [끓주린 자가] 절실하게 음식을 바라듯
그 반짝이는 칼끝이 영국인의 피로 적셔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욕망으로 빛나도록 하라.

기병들의 반월도가
번쩍이며 대기를 가르도록 놔둬라.
죽음과 애도의 바다에 빠져 빛을 잃는
케도 잃은 유성처럼.

그대들은 침착하고 결연하게 맞서라.
나무 뻗뻗한 침묵의 숲처럼
팔짱을 끼고 차분하게 바라보라.
그것이 질 수 없는 전쟁의 무기니까.

(315~26행)

이 대목은 이른바 개혁운동의 ‘비폭력’ 노선을 표현한 것이며, 간디(Mahatma Ghandi)의 비폭력 저항운동이나 킹(Martin Luther King) 목사의 비폭력 민권운동에 영향을 끼친 유명한 구절이다. 이 시를 쓴 때가 피털루학살이 자행된 직후라는 점을 고려하면, 셸리의 이러한 주장은 조금 예상을 벗어난 측면이 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훗날까지

도 의견이 분분하다.⁴⁰⁾ 우선 일반대중들에 대한 잔혹한 학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이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내주라는 식의 주문은 예수 같은 성인이 아니고서야 따르기 어려울뿐더러, 극한의 폭력을 당하고 극도의 분노에 휩싸인 당사자들에게 “용기를 잃지 말고 더 당하라”고 권고하는 것은 아무리 문학적 수사라도 과연 실효성이 있는 얘기였겠냐는 것이다. 더욱이 그러한 “권고”를 제시한 사람이 싸움의 현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타국에 망명하고 있는 명망가 중산층 책상물림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현장을 지키는 민중들의 입장에서는 셸리의 정치적 순진성과 도덕적 무책임성을 비난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셸리의 이러한 ‘비폭력’ 노선은 결코 순진성과 무책임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또 이번 사태 때문에 갑작스럽게 생겨난 것도 아니었다.⁴¹⁾

1810년대의 개혁가들의 운동노선은 그 지도자들의 계층에 따라 중산층 성향의 선거권 확대 투쟁, 노동계급 중심의 임금·식량투쟁 등 당장의 투쟁목표에서는 강조점이 다를 수 있었지만, 그들의 방법론은 당장의 민중봉기나 폭동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시위를 거쳐 의회에서 입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대체로 통일되어 있었다.⁴²⁾ 이렇게 대세를 이루고 있던 평화시위와 합법적 투쟁을 방해하는 요소는 두가지였는데, 하나는 모든 사유재산의 폐지를 주장하는 스펜스주의자(Spencean)들의 극단적인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에서 개혁운동 내부에 침투시켜놓은 스파이들의 존재였다. 이들은 대체적으로 평화적이고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개혁운동이 틈을 보일 때마다 운동의 방

40) 셸리의 이른바 “비폭력” 노선에 관한 최근의 연구로는 Matthew C. Borushko, “Violence and Nonviolence in Shelley’s Mask of Anarchy,” *Keats-Shelley Journal: Keats, Shelley, Byron, Hunt, and Their Circles* 59 (2010) 96~113면; Reno, 앞의 글 80~98면 참조.

41) Walker, 앞의 글 129면.

42) Cameron, “Shelley and the Reformers” 84면.

향을 폭동과 파괴적인 폭력으로 유도하려고 했다. 전자는 투쟁방식으로서 그러한 모험적 노선을 신봉했던 것이고, 후자는 정부의 폭력적 진압을 유도하고 정당화하기 위해서였다.

1816년 11월 15일과 12월 2일에 있었던 스파필즈폭동(Spa Fields riots)에서는 스펜스주의자들이 영국은행과 런던탑을 공격하려는 비밀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겼는데, 첫번째 집회에서는 헨리 헌트의 개입으로 입법청원을 제출하는 것으로 끝났지만 두번째 집회에서는 실제로 총포상에서 총기를 탈취한 100여명의 스펜스주의자들이 런던증권거래소 앞에서 군대와 총격전을 벌이기도 했다.⁴³⁾ 200여정의 소총과 심지어 3문의 대포까지 동원한 그들의 무력투쟁은 정부의 정규군에 의해 간단하게 진압되었지만, 이 사건은 이 시에 등장한 내무장관 캐슬리리가 1817년에 인신보호율(habeas corpus)을 정지하고 모든 종류의 ‘선동적인 집회’를 금지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이 때문에 급진주의 개혁가들은 사전영장 없이 구금·투옥될 수 있었고, 위협을 느낀 당시의 대표적인 개혁운동가 코벳이 미국으로 2년간 도피해야 했다.⁴⁴⁾

한편 우리에게는 ‘프락치’라는 러시아어로 더 익숙한 정부의 앞잡이(agent provocateur)의 존재 역시 이 당시 개혁운동의 큰 위협이었다. 피털루학살보다 2년 먼저 영국 중부의 팬트리치에서 일어난 노동자들의 폭력시위는 이러한 앞잡이들의 위협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였다. ‘올리버’(Oliver)라는 별명으로 암약했던 정부의 앞잡이 리처즈(W. J. Richards)는 허더즈필드에서 벌어진 시위에서 “동지들이여, 이제 영국의 모든 민중은 무장됐고, 우리의 자유는 확실해졌다. 부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빈자는 부자가 될 것이다”라고 외치며 선동했고,

43) Wright, 앞의 책 68면.

44) 같은 책 67~69; Thompson, 앞의 책 631~49면; Stevenson, 앞의 책 193~98면 참조.

이에 고무된 브랜드레스(Jeremia Brandreth)는 인근 노팅엄까지 유명한 “14마일 행진”을 감행했다. 톰슨에 의해 “중산층의 도움 없이 순수하게 노동계급의 주도로 이루어진 최초의 내란”으로 기록된 이 시위에는 양말편물공, 채석공, 대장장이 등 다양한 노동자들이 약간의 총과 칼, 낫과 곤봉으로 ‘무장’하고 시작했지만 목표지점이었던 노팅엄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소규모의 경기병에게 간단히 제압되었다. 총 35명이 체포되었고, 주모자였던 브랜드레스는 터너(William Turner), 러드램(Issac Ludlam)과 함께 대역죄(high treason)를 선고받고, 사지가 절단되는 극형을 당했다. 이 사건이 완전히 ‘올리버’의 기획에 의해서만 선동된 사건이나에 대해서는 다소의 논란이 있지만, 이것이 개혁운동 내부에서 앞잡이의 위험성과 폭력이 초래하는 위험을 다시 인식하게 된 계기였음에는 틀림이 없다.⁴⁵⁾

스파필즈폭동과 펜트리치봉기는 여러모로 피털루학살의 전조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들이었는데, 이 사건들이 셸리를 포함한 당시의 개혁가들에게 준 교훈은 폭력을 수반한 개혁운동은 그 자체로 성공하기 어렵고, 더욱더 강력한 탄압에 발미를 제공할 뿐이라는 점이었다. 실제로 펜트리치봉기 이후에는 대부분의 개혁가들이 합법성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⁴⁶⁾ 셸리도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좋은 나쁜든 그대들 나라의 법률이

그대들 가운데 서게 하라.

손과 손, 발과 발 사이에서

45) Reginald James White, *Waterloo to Peterloo* (Harmondsworth: Penguin, 1968) 170~83면; Thompson, 앞의 책 649~69면; Wright, 앞의 책 69~70면 참조.

46) Walker, 앞의 글 134~39면.

분규의 해결사가 되게 하라.

(331~34행)

시의 결론부에 나오는 이러한 비폭력·합법투쟁의 노선은 이 시에서 후렴처럼 반복되는 “잠에서 깨어난 사자들처럼 일어나라”의 선동적 노선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지만, 1815년 이후 개혁운동 진영과 정부 간의 대립과 충돌의 경험을 공유한 당대 개혁운동가들의 입장에서는 셸리의 이른바 ‘온건’노선이 훨씬 더 현실적인 방안으로 느껴졌을 가능성이 많다. 물론 오늘날의 눈으로 보면 학살의 주범에 대한 분노와 그에 상응하는 개혁을 향한 열망과 셸리의 ‘온건한’ 개혁론 사이에는 일정한 정서적 격차가 느껴지는 것은 어느정도 사실이지만, 이것은 셸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돌파구를 찾기 어려웠던 개혁운동 진영 전체의 고민과 한계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온당할 것이다.

셸리의 이러한 ‘시적 연설’이 끝나고 「가면극」은 셸리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대목(364~76행)으로 마무리되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시 전체의 ‘결론’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학살은 온 국민에게
영감(靈感)처럼 솟아올라 전해지리라.
웅변처럼, 예언처럼
멀리서 들려오는 화산의 폭발음처럼.

그리고 이 말들은 울리게 되리라
탄압의 종말을 천둥소리로 알려주듯
모든 이의 가슴과 머리를 통해 울리면서

다시 들려온다, 또 다시, 또 다시.

잠에서 깨어난 사자들처럼 일어나라
제압할 수 없이 많은 숫자로.
그대들을 움아맨 사슬을 대지에 떨쳐버려라
잠든 사이 슬며시 내려앉은 이슬을 떨쳐내듯이.
그대들은 많고, 그들은 적다.

(364~76행)

이 대목의 마지막 연은 앞의 ‘가면극’ 부분의 마지막 연(151~55행)을 문자 그대로 반복하고 있지만 그 앞의 두 연은 “희망”이라는 이름의 “미친 처녀”가 초래하게 될 부활의 순간을 예언한다. 위의 “이 말들”(368행)은 앞에 나온 “기쁨과 두려움의 이 말들”(These words of joy and fear, 138행)을 다시 받는 것이기도 하고, 후렴처럼 반복되는 다음 연(372~76행)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피털루의 참상을 그 역사적 맥락 속에서 생생하게 증언한 이 시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다. “이 말들”이 가진 힘이야말로 피털루의 잔혹한 탄압과의 싸움에서 끝내 승리할 수 있는 지성의 힘이며, 시의 힘으로 현실화되는 계몽의 힘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밀이 “전환의 시대”에 인류가 아직 얻지 못했다고 했던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한 셸리적인 해석이었다.

3. 「개혁에 관한 철학적 견해」⁴⁷⁾

셸리는 1819년 11월에서 1820년 1월 사이에 이 정치산문을 집필했다. 그는 리 헌트에게 출판을 부탁하면서 자신의 글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이 글은 대담하게, 하지만 절제있게 쓰인 글이며, 내 생각에 읽을 만합니다. 이 글은 철학적인 개혁가들을 위한 일종의 교과서로 의도되었지만, 동시에 정치적인 고려도 담았습니다. 말하자면 벤섬(Jeremy Bentham)의 책 같은 것인데, 그의 책과는 다르고, 아마도 더 체계적일 것입니다.⁴⁸⁾

“철학적인” 개혁가를 위한 교과서라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개혁의 이념과 원리를 가장 원론적인 수준에서 정리했다는 뜻이고, “동시에 정치적인 고려를 담았다”는 것은 개혁을 위한 철학적 원칙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개혁운동의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원칙을 함께 담고 있다는 것이다. 셸리가 자신의 이 글을 “읽을 만하다”고 자평했고, 벤섬의 책보다 더 “체계적”이라고 주장한 것을 보면 셸리 자신은 이 글에 대하여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개혁운동계에서 읽히기를 바랐던 것 같다. 하지만 이 글 역시 당대에는 출판되지 못했고, 거의 100년간이나 묻혀 있다가 1920년에야 정식으로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 그 이후 이 글에 대한 여러가지 설명과 다양한

47) 이하 본문에서는 「철학적 견해」로 칭하고, 이 산문을 인용할 때는 괄호 안에 면수만 표기함.

48) Cameron, *The Golden Years* 342면 재인용.

해석이 꾸준히 제시되어왔지만,⁴⁹⁾ 여기서는 앞에서 간략하게 검토한 「가면극」과의 연관관계 속에서 몇 대목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밀이 말했던 것처럼 당시는 “진보에 대한 기대감”이 팽배했지만, “아직 [그것을 대처할] 새로운 것들을 얻지 못한” 채 보수진영의 강력한 반동을 불러일으켰던 “전환의 시대”였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셸리의 「가면극」과 「철학적 견해」는 바로 이러한 밀의 진단에 정확하게 대응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셸리는 우선 “진보에 대한 기대감”을 넘어서서 밀이 당시의 시대정신으로 인식했던 진보의 역사적 필연성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했고, 「가면극」의 ‘가면극’ 부분(1~155행)과 「철학적 견해」의 1장(5~20면)이 그것에 해당한다. 셸리의 두번째 과제는 보수진영이 수백년 동안 영국민종들에 대한 지배를 공고히 하고, 부자와 빈자의 격차를 영구화하기 위해 사용한 사기와 헐잡의 논리를 근본적으로 혁파하는 것이었다.⁵⁰⁾ 다시 말해서 셸리는 지배계급이 종교와 전통의 이름으로 위장해온 지배 이데올로기의 근간을 해체하고자 했는데, 「가면극」의 156~265행에서 이를 시도했고, 「철학적 견해」의 2장(21~41면)에서 이것을 받아 좀더 자세하게 부연했다. 그다음은 진보운동 진영에 좀더 구체적인 전술, 즉 저항의 방식을 제시하는 것인데, 「가면극」에서는 266~363행이 이에 해당하고, 「철학적 견해」의 3장(42~55면)이 그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당시의 진보진영이 “아직 얻지 못한 새로운 것”을 제시하는 것인데, 「가면극」의 마지막 세연(364~76행)과 「철학적 견해」 1장의 결론부(19~20면)가 이에 해당한다.

49) Alan M. Weinberg and Timothy Webb, *The Unfamiliar Shelley* (London: Routledge, 2016)에서 13장 “These Catchers of Men”: Imposture and its Unmasking in ‘A Philosophical View of Reform’” 주석 5번은 「철학적 견해」의 출판경위와 주요 연구들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258~59면 참조.

50) Weinberg, 앞의 책 257~59면 참조.

진보의 역사적 필연성과 시인의 역할

1816년 8월 16일의 피털루학살은 셸리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다. 그 때문에 그 이후에는 어느정도 유화적인 조치를 기대할 만도 했다. 하지만 토리당의 리버풀(Rober Jenkinson, 2nd Earl of Liverpool)은 1819년이 가기 직전인 12월 30일에 악명 높은 “여섯개의 법”(Six Acts)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은 개혁운동 진영의 거의 모든 활동을 불법화했다.⁵¹⁾ 정부의 이러한 강경조치는 당시 개혁운동의 기세를 상당 부분 꺾는 데 성공한 것이 사실인데, 셸리는 위기에 처한 영국의 개혁운동 세력에 힘을 보태고 싶었고, 그것을 위해서는 당장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진보가 역사의 대세임을 주장해야 했다. 셸리는 「철학적 견해」에서 로마시대 이후의 유럽역사를 독재자들의 폭정에 대한 민중의 저항의 역사로 규정한다.

이러한 저항이 진압되었을 때도(협잡과 폭정에 대한 저항이 진압되지 않았던 적이 있었던가?) 또다른 저항[의 기운]이 무르익어가고 있었다. 인류를 성직자들과 왕들의 굴레로부터 불완전하게 해방시켰던 사건, 이른바 종교개혁이라는 것에서 멈춰 있었던 철학과 문명의 발전이 이미 다시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다. 빈자들은 오랜 고통에 분노했고, (...) 그들의 당연한 적인 부자들에 맞서 일어났으며, 오랜 폭정이라는 빛을 찢는 이자를 쳐서 되갚았다. (6면)

51) 내무장관 시드므스는 지역 사법당국자들의 요청에 따라 일체의 시위와 집회를 금지하는 여섯개의 법안을 1819년 12월 30일에 통과시켰고, 그 내용은 ‘훈련방지방법’ ‘무기압수법’ ‘일탈행위법’ ‘선동집회법’ ‘신성모독과 선동적 비방법’ ‘신문인지 의무법’이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historyhome.co.uk/c-eight/distress/sixacts.htm> 참조.

셸리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저항의 역사를 이끌어온 것은 “철학과 문명의 발전”의 주역인 예술가와 철학자, 그리고 시인들이었다. 당시 셸리가 머물고 있던 이탈리아의 역사에서도 주변 폭군들의 침략을 이겨내고 공화국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라파엘(Raphael)과 미켈란젤로(Michelangelo) 같은 뛰어난 예술가들의 정신이었고, 영문학의 “아버지” 초서(Geoffrey Chaucer) 역시 이러한 공화국에서 자라난 사람들의 “단순하고 강력한 언어”를 이어받아 영문학의 기초를 닦았다는 것이다. 당시의 영국이 유럽의 다른 군주제 국가에 비해 상대적인 정치적 선진성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 역시 베이컨(Francis Bacon)이나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같은 위대한 철학자나 시인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셸리의 주장이었다. 셸리에 따르면 이러한 철학자와 사상가, 시인들이 만든 계몽적 정신이 민중들에게 “굴복에 대한 확고한 경멸감”(6면)을 갖도록 만들었고, 이것이 영국의 청교도혁명·미국혁명·프랑스혁명에서와 같이 폭정에 대한 민중적 저항의 역사를 추동해왔다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흥미로운 것은 당시의 독일에 대한 셸리의 평가다.

독일시의 심상에 존재하는 깊은 정념과 대담한 아이스킬로스적(Aeschylean) 활기, 왜곡되긴 했지만 종교적 정서에 들어 있는 열정, 변화하는 모든 생각을 다면적으로 반영하는 언어적 융통성과 포괄성, 엄정하고 대담하며 진보적인 비판정신, 섬세하고 심오한 철학 (...) 조형예술에 대한 취향과 능력,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이 위대한 국민임을 입증한다. 그리고 모든 위대한 국민은 [과거에] 자유로웠거나, [현재] 자유롭거나, [앞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15면)

결국 한 나라의 철학과 문학이 도달한 수준이 그 나라의 자유의 수준을 말해주는 지표라는 것이다. 나폴레옹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정치적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독일에 대하여 셸리가 이렇게 높은 평가를 내렸다는 것은 그의 놀라운 역사적 예지력은 물론이고, 진보적 역사를 추동하는 시와 철학의 역할에 그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잘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영국에 대한 평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시기심에서 저평가하지만] 우리 영국인들은 우리 시대가 그 지적 성취에서 기억될 만한 시대이며, 우리가 자유를 위한 마지막 투쟁을 벌인 이래 어느 시대와 비교해도 훨씬 뛰어난 철학자들, 뛰어난 시인들과 함께 살고 있다고 느낀다. 왜냐하면 한 국민의 정서가 유익한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보편적으로 활용될 때 가장 확실하게 앞서거나, 같이 가거나, 뒤따르는 것이 바로 시이기 때문이다. (...) 시인과 철학자들은 [표면적으로] 어떤 [정치적] 체제를 옹호하든 상관없이, 실제로는 자유의 편에 기여한다. (...) 그들은 포괄적이고 모든 것을 꿰뚫는 정신으로 인간적 본질의 한계를 재고 깊이를 측정한다. 그러다 보면 그들 스스로 진심으로 놀란다. 왜냐하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자신들의 정신이 아니라 시대의 정신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알려지지 않은 영감을 전해주는 사제들이며, 미래가 현재에 드리우는 거대한 그림자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그들의] 말들은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표현한다. 전투에 나서라고 나팔을 불지만 스스로 그것이 어떤 영감을 주는지는 느끼지 못한다. 영향을 주려고 의도하지 않지만 영향을 준다. 시인들과 철학자들은 이 세상의 공인되지 않은 입법자들이다. (19~20면)

셸리는 자기가 살고 있는 바로 1819년 현재가 “그 지적 성취에서 기억될 만한 시대”이며 “어느 시대보다도 훨씬 뛰어난 철학자들, 뛰어난 시인들과 함께 살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대의 정신”을 대표하고 “알려지지 않은 영감을 전해주는 사제의 역할”을 하며, 본인의 정치적 의견과 무관하게 “자유의 편”에 기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바로 이들의 존재와 역할 덕분에 당장의 참혹한 패배와 좌절에도 불구하고 개혁운동의 궁극적인 승리와 진보의 역사적 필연성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셸리가 시인을 “공인되지 않은 입법자”라고 정의한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인데, 셸리에게 인류의 역사는 독재자에 대한 민주적 저항의 역사였고, 그러한 저항의 정신을 민중에게 고취하는 것은 늘 시인들이었다는 것이다. “입법자”라는 명칭은 예나 지금이나 시인에게 적용하기에는 너무나 세속적이고 생경한 말이지만, 이 맥락에서의 “입법자”는 과장된 문학적 수사법이 아니다. 개혁운동이 정치적 개혁을 위해 그토록 오랫동안 ‘청원’을 해왔던 대상이 바로 현실의 “입법자” 국회의원이었고, 시종일관 개혁적 법안을 가로막아온 자들도 바로 그들이었음을 고려할 때, 특히 피털루 학살 이후 개혁운동을 완전히 질식시킬 목적으로 “여섯개의 법”을 통과시킨 것도 바로 그들 현실의 “입법자”들이었음을 상기할 때, 셸리가 시인과 철학자들에게 “입법자”라는 생경한 칭호를 새삼스럽게 부여한 것은 그 자체가 매우 공격적인 정치적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피털루 학살로 진압되고 “여섯개의 법”으로 질식당하고 있는 개혁운동을 되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진보의 필연성을 고취할 계몽적 역사인식이었고, 그러한 필연성을 현실화할 수 있는 “새로운 것”은 현실의 “입법자”가 아니라 “공인받지 않은 입법자” 시인에 의해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개혁운동가 셸리의 확고한 신념이었기 때문이다.

지배층의 사기와 협잡

셀리가 보기에는 당시의 개혁운동이 당면한 정치적 난관을 돌파하고 “저항의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여섯개의 법”보다 더 근본적으로 “저항의 정신”을 억압했던 “옴아맨 사슬”(「가면극」 153행)을 벗겨내야 했다. 지배계급이 민중에 대한 착취를 영속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사기”와 “협잡”을 폭로하고 해체하는 데에는 무엇보다 자신과 같은 시인의 통찰력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셀리는 「철학적 견해」 두번째 장에서 개혁운동의 구체적인 요구사항 자체를 제시하기보다는 그러한 요구들의 정당성을 보여줄 수 있는 역사적 근거와 배경에 천착한다. 가령 셀리가 1819년의 시점에서 개혁의 정당성을 역사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주목하는 것은 1688년의 역사적인 의미였다. 1688년의 명예혁명은 군주의 권한을 제한하는 입헌군주제를 도입한 시점이었고, 버크를 포함한 보수진영의 입법자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한 영국민주주의 발전의 이정표였다. 그러나 셀리의 생각에 이 1688년은 그 모든 “사기”와 “협잡”의 출발점에 불과했다. 우선 선거권의 확대 문제만 해도 그렇다. 선거권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자비로운 마음에서 중간층 이하의 사람들에게 조금 더 많은 정치적 발언권을 허용하기 위함이 아니라, 엄청난 인구증가로 인해 발생한 기형적 선거구를 대의정치의 취지에 맞게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지배계급의 입장에서는 명예혁명에 의한 왕권의 제한이 민주주의의 신장일 수 있겠지만, 셀리의 시각에서는 왕의 정치적 권한을 다수의 귀족들이 나눠 갖는 귀족과두정치의 시작이었을 뿐, 민중에게 의미 있는 민주주의의 발전은 전혀 아니었다.

1688년이 영국적 민주주의 체제의 시작이라는 보수진영의 입장과는 반대로 셀리에게는 그 시점이 새롭게 개편된 지배계급이 주도하

는 새로운 협잡의 출발점이었다. 1688년에서 불과 6년 후에 창설된 영국은행(The Bank of England)의 영업 개시는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신용경제체제의 출범을 의미했다. 셸리에게 ‘가치’는 오로지 노동에 의해서만 창출될 수 있고, 금본위제에서 그것은 그에 합당한 금의 양으로 표현되는데, 정부의 보증에 의해 실체 없는 가치의 ‘기호’들이 무한정 유통되는 현대의 금융제도는 노동에 의하지 않은 부의 축적을 좀더 용이하게 함으로써 “빈자에게는 노동시간을 늘리고, 부자에게는 사치품들을 늘리는” 결과만 낳았다는 것이다(27면). 이러한 제도에 힘입어 성장한 계급이 중산층인데, 이들은 토지귀족과 부유한 무역업자 같은 전통적인 부유층에 더해 새로운 종류의 귀족계급으로 등극했다는 것이 셸리의 주장이었다(28면). 변호사·세금징수원·관리자·연금생활자·고리대금업자·주식거래업자·은행관계자 등이 이 계급에 속하고, 이들의 존재와 이들이 움직이는 현대적인 금융제도는 진정한 가치의 생산자인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적인 착취를 더욱더 강화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노동가치설에 입각하여 자본주의 신용경제의 작동방식을 근본적으로 비판한 것이다.⁵²⁾ 이들에 대한 셸리의 비판에서 흥미로운 것은 이들 신흥귀족의 문화적 저열성에 대한 공격이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잔다. 그 사이사이에 정말이지 말도 안되는 절차에 따라 반주에 맞춰 아양을 떨거나 거짓말을 한다. 그들은 책에서 자신의 평범성에 걸맞은 내용이나 자신의 맥빠진 상상력을 자극하는 유일한 요소, 즉 우둔하고 왜곡되고 조화를 잃은 이상주의를 요구함으로써 그들이 사는 시대의 문학에 독을 탄다. 그들의 희망과 두려움은 가장 편협하게 묘사할 수 있다. 가족에 대한 사랑은 미약하며, 다른 사람

52) Weinberg, 앞의 책 271~272면.

의 대상은 아예 없다. 그들은 자신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 교류하는데, 그것도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저열한 형태의 개인적 이득을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한다. (29면)

현대적인 사고방식으로 보면 이들의 천박한 문학적 취향과 자본주의의 약탈적인 경제원리는 별 상관이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셸리는 이 모든 것이 일맥상통한다고 봤다. 이들은 동물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동 말고는 오로지 경제적 이득을 위한 생각과 말만 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타락한 취향과 소외된 언어가 그들이 사는 시대의 문학을 죽이고, 모든 것을 “개인적 이득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인간관계는 공동체를 파괴한다. 셸리는 여기서 인간의 말과 사고, 인간적인 애정과 공동체의식 등이 모두 상품 간의 관계로 전환되는 현상을 지적하는 것인데, 이것은 나중에 맑스(Karl Marx)가 자본주의 사회의 정치경제 비판에서 지적한 상품의 물신숭배(commodity fetishism) 또는 루카치(Georg Lukacs)가 말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물화(Reification)의 현상을 셸리 나름으로 통찰한 것이다.⁵³⁾ 셸리는 천재적인 시적 통찰력을 통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작동원리가 가지는 의미를 누구보다 먼저 간파하고, 이것을 노동계급에 대한 지배를 영속화하는 지배계급의 “사기”와 “협잡”으로 규정했다.

셸리의 ‘온건책’은 타협인가, 실용인가?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적 공세에 대한 셸리의 반격은 이처럼 원칙과 이론에만 머문 것은 아니었다. 당시 대부분의 개혁운동가들이 내세

53) Scrivener, “Politics, Protest, and Social Reforms” 174면.

왔던 개혁의 의제들을 셸리 역시 모두 거론했고, 자신의 입장을 빠짐 없이 제시했다. 국가채무(the national debt)의 제거,⁵⁴⁾ 상비군의 해체, 세금으로 유지하는 한직(sinecures)의 철폐, 종교의 평등 보장, 사법제도의 개혁 등이 그것들인데,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셸리의 분석에는 노동계급의 경제적 고통과 개혁운동 현장의 실상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이해가 수반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다(34~41면). 많은 셸리학자들이 당혹스러워하는 부분은 셸리의 이데올로기적 폭로가 가진 급진성에 비해 개혁운동의 구체적인 의제들에 대한 셸리의 입장은 「가면극」 315~26행에서 그랬듯이 예상외로 매우 온건해 보인다는 점이다. 중산층 기반 개혁운동가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의회개혁의 문제가 대표적인 예다. 셸리는 보통선거(universal suffrage)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론적으로는 보통선거가 옳겠지만 보통선거는 군주제와 귀족제 철폐, 과도한 재산의 재분배, 미사용 공유지의 분배 등 여러가지 급진주의적 요구들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당시 개혁운동의 단계에서는 시기상조로 보인다는 것이었다(40~41면). 셸리는 영국에서 청교도혁명이 실패한 공화주의가 왕정복고와 명예혁명으로 후퇴한 것이나 프랑스에서 시도한 좀더 급진적인 공화국이 나폴레옹의 몰락과 더불어 수포로 돌아간 것은 모두 민중들의 각성과 계몽의 정도가 그러한 실험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사회의 발전이나 민중의 계몽 단계를 넘어서 개혁을 밀고 나가는 것은 오히려 역사를 후퇴시킬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공화국은 그 원칙이 아무리 옳고 그 목적이 아무리 고귀하다고 해도, 폭력과 급격한 변화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성장속도가 빠른 만큼

54) Kenneth Neill Cameron, "Shelley, Cobbett, and the National Debt," *Journal of English and German Philology* 42 (1943) 197~209면.

쇠퇴의 속도도 빨라질 위험이 있다. 민중들이 온전한 진실을 알게 되는 것, 민중들이 자기들이 가져야 할 권리들의 근거를 분명히 이해하고 그들이 추구해야 할 목표를 정확히 아는 것, 그리고 인내와 이성, 지속성이야말로 조용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진보[의 수단]라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41면)

셸리가 개혁의 실제적인 의제에 관해서 보여주는 예상 밖의 온건함은 사실상 그의 초창기 정치산문에서부터 일관되게 나타났던 입장이기도 하고,⁵⁵⁾ 「가면극」과 「철학적 견해」의 맥락에서 보더라도 모호함이나 일관성의 결여라기보다는 개혁운동의 현실을 감안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많은 평자들이 얘기하듯 셸리의 ‘온건한’ 전략은 그 자체가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더 장기적인 목표의 달성을 위한 출발점이기 때문이다.⁵⁶⁾ 개혁가로서 셸리의 입장은 1817년에 비해 피델투학살을 겪고 나서 「철학적 견해」을 쓸 때쯤에 이르면 리 헌트나 버렛의 입장보다는 코빗이나 헨리 헌트에 더 가까울 정도로 오히려 ‘덜’ 온건해졌다고 평가되기도 한다.⁵⁷⁾ 하지만 셸리는 기본적으로 대중을 자극하고 때로는 폭력을 활용하기도 하는 선동정치를 혐오했고,⁵⁸⁾ 당시의 상황이 점점 더 폭력적인 혁명이 불가피해지는 단계로 접근하고 있다는 불길한 정세판단을 하고 있긴 했지만, 그러한 마지막 단계가 오기까지는 자신이 이 글에서 하고 있듯이 계몽적 수단에 의지하는 것이 옳다고 믿었다.⁵⁹⁾ 그러한 계몽적 수단 중 가장 강력

55) Scrivener, "Politics, Protest, and Social Reform" 175~76면.

56) P. M. S. Dawson, *The Unacknowledged Legislator* (Oxford: Clarendon Press, 1980) 174~75면. 포스(Chris Foss)는 이것을 "실용적 이상주의"(pragmatic utopianism)라고 표현했다. Foss, 앞의 책 47면.

57) Cameron, "Shelley and the Reformers" 84면.

58) Dawson, 앞의 책 173면.

59) 같은 책 190면.

한 무기는 물론 시였고, 그것을 가장 잘 사용할 사람도 자신과 같은 시인이었다. 셸리에게 시인은 “공인받지 않은 입법자”로서 “기쁨과 두려움으로 된 이 말들”(「가면극」 138행)을 퍼뜨림으로써 민중을 각성하고 개혁운동 진영에 “아직 얻지 못한 새로운 것”을 제공하는 자였다. 그런 의미에서 1819년의 시대정신 안에서 “새로운 것”을 고대하는 개혁운동의 맥락을 고려할 때 같은 시기에 플로렌스에서 쓰인 「서풍에게 바치는 송가」의 마지막 대목은 더욱 분명한 정치적 울림을 갖는다.⁶⁰⁾

꺼지지 않은 화로에서 나온 재와 불씨처럼
내 말들을 사람들 사이에 뿌려라.
내 입술을 지나 깨어나지 않은 대지까지 전해지는

예언의 나팔 소리가 되어라, 오 바람이여,
겨울이 오면, 봄이 멀리 있겠는가?⁶¹⁾

4. 맺음말: 셸리의 「1819년의 영국」

「가면극」과 「철학적 견해」는 셸리가 피털루학살의 참상에 대응하여 “자유의 편에 기여”하고자 민중들에게 바친 문학적 헌정이었다. 그 헌정의 목적은 피털루학살이 상징하는 계급적 압제의 역사적이고 이데올로기적 본성을 폭로·해체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민중들에게

60) Michael O'Neill, *Percy Bysshe Shelley: A Literary Life* (London: Macmillan, 1989) 104~105면.

61) Percy Bysshe Shelley, *Selected Poems and Prose* 6, ed. Jack Donovan and Cian Duffy (London: Penguin Books, 2016) 464면.

진보의 역사적 필연성을 납득시키며, 그들에게 개혁의 궁극적 승리에 대한 믿음을 전파함으로써 개혁운동을 패배주의로부터 구해내는 것이었다. 셸리의 헌정이 가진 특별한 점은 시를 진보의 승리를 예언하는 역사적 낙관론의 논리적 근거로 삼았다는 점이다. 그것은 「가면극」에서 “탄압의 종말”을 예언하며 “다시…… 또 다시, 또 다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이 말들”(368~70행)의 힘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철학적 견해」에서는 “미래가 현재에 드리우는 거대한 그림자를 보여주는 거울”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말들”(20면)의 힘으로도 나타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것은 ‘시의 힘으로 현실화되는 계몽의 힘’이었다. 이 “말들”은 시인들이 “그들 시대의 정신”(the spirit of their age, 「철학적 견해」 20면)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무한히 재현하는 역사의 신탁(神託)이었으며, 밀이 “전환의 시대”에서 진보의 궁극적 승리를 위해 필요로 했던 “새로운 것”의 내용이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셸리는 리 헌트에게 「가면극」의 출판이 거절당한 뒤에도 「가면극」의 출판을 계속해서 모색했는데, 이때 이 시와 같이 출판하려 했던 “대중적 노래들” 중에는 「가면극」과 같은 시기에 쓰인 「1819년의 영국」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짧은 소네트(sonnet)는 사실상 「가면극」과 「철학적 견해」의 이러한 “말들”을 열네줄로 요약한 것이다.

늡고, 미치고, 경멸받으며, 죽어가는 왕.
그리고 왕자들. 대중의 멸시 속에 흘러가는
명청한 족속들의 마지막 찌꺼기, 진흙탕 속의 진흙.
피를 포식하여 눈이 멀면 때리지 않아도 떨어지는 거머리처럼
비틀거리는 나라에 달라붙어 있는
보지도, 느끼지도, 알지도 못하는 지배자들.
경작 안된 들판에서 굶고 칼에 찔린 민중.

휘두른 자들 모두에게 양날의 칼이고,
그 자체가 먹잇감이며 자유의 살해자인 군대.
유혹하고 살해하는 금빛과 핏빛의 법률.
한권의 봉인된 책, 구세주 없고, 신도 없는 종교.
역사상 최악의 법령임에도 폐지되지 않는 의회.
그 모든 것은 무덤이다.
그 안에서 영광스러운 유령이 떨치고 나와
이 격동의 세월을 비추리라.⁶²⁾

이 시는 1819년의 “시대정신”이 셸리의 입을 빌려 후세에 전달한 신탁이 되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다. 이 ‘신탁’은 열네줄 안에 「가면극」과 「철학적 견해」의 모든 “말들”을 축약해서 담을 만큼 고도로 응축된 시적 은유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 글에서 재구성한 “시대정신”의 맥락에서는 그 역사적 기의(記意)를 판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가령 “늡고, 미치고, 경멸받으며, 죽어가는 왕”은 1810년부터 왕자에게 통치권을 위임한 조지 3세(George III)였고, 거머리처럼 망해가는 체제의 피를 빠는 “찌꺼기” 중에는 곧 조지 4세로 즉위하게 되는 섭정왕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경작도 안된 들판”은 피털루학살의 무대였던 맨체스터의 세인트피터 광장을 뜻했고, 민중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은 자영농의 기마의용병의 칼이었을 뿐만 아니라, 애당초 그들이 그러한 집회에 나오도록 만든 절대적 가난이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학살의 직접적인 가해자였던 군인들에 대한 표현도 찝막하지만 핵심을 관통한다. 그들이 “먹잇감”이면서 동시에 “자유를 죽인 살인자”인 것은 기본적으로 동원된 군병력뿐만 아니라 시위군중 중에도

62) 같은 책 472면.

위털루 참전용사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진압군은 시위군중을 학살했다는 점에서 “자유를 죽인 살인자”이지만, 더 큰 역사적 맥락에서는 “자유”를 실현하려는 프랑스를 상대로 싸워 제압한 아서 웰즐리(Arthur Wellsley, Duke of Wellington)의 군대라는 점에서 그렇기도 하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본인들의 계급적 본질을 깨닫는 순간 이들의 칼날이 민중이 아니라 지배계급으로 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을 “양날의 검”이라고 본 것이다. 이것은 「가면극」의 360~63행에서 “전쟁에서 수많은 위험을 감수했던 / 진정으로 대담한 전사들은 / 그런 비열한 자들과 어울린 걸 부끄러워하며 / 자유를 얻을 그대들의 편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며, 「철학적 견해」에서 살인자였던 군인들도 시위대가 도망치지 않고 결연하게 맞서면 “적(이었던 그들)이 우군으로 전향할 것”(49면)이라고 했던 말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금빛과 핏빛의 법률”은 당연히 당대 영국의 법체계를 겨냥한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할 법의 의미가 실제로는 계급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비판한 것인데, 가령 1815년에 통과된 ‘곡물법’ 같은 것은 지배계급에는 경제적 이윤을 보장해주는 “금빛” 법률이지만, 민중들에게는 저임금과 가난의 직접적 배경이고, 결국 피털루학살과 같은 유혈사태의 원인이기도 하다는 인식이 여기에 들어 있다. 이것은 「가면극」 160~92행에서 “금의 유령”(176행)이 민중들의 노동을 수천배 더 착취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민중들이 조금이라도 불평을 하면(188~89행) 피털루학살에서 그랬듯 곧바로 “폭군”의 부하들이 덮칠 것이며, 그 결과 “풀밭에 피가 이슬처럼 맺힐 것”(196행)이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종교의 타락은 영국에서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봉인된 책”이라는 자신들의 신념 이외에는 아무것

도 인정하지 않는 영국 국교회의 편협한 자세, 그리고 셸리가 1811년 아일랜드에 갔을 때부터 역설했던 가톨릭교에 대한 억압정책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고, 의회가 “[그 자체가] 역사상 최악의 법령[의 소산]임에도 폐지되지 않았다”는 것은 의회가 개혁운동의 청원을 거부하는 한 폐기의 대상일 뿐이라는 셸리의 무정부주의적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그렇게 타락한 교회와 의회는 죽어가는 미친 왕과 그 “찌꺼기”들과 더불어 「가면극」에 나오는 “혼돈”으로 표상되었다. 교회의 주된 구성원인 귀족들은 피털루의 학살을 배후에서 조종한 “고용된 살인자들”(「가면극」 60행)에 불과하며 이들은 “혼돈”을 향해 “그대는 신이며, 법이며, 왕”이라며 아첨한다(「가면극」 61행). 흥미로운 것은 왕과 왕족, 군대, 의회와 교회 등 영국의 지배계급 전체를 모두 몽둥으려 “무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셸리가 영국의 민중에게 보내는 신탁은 왕족을 포함한 영국의 지배층(the establishment) 전체가 궁극적으로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입장은 「가면극」에서 “혼돈”이 죽음의 말발굽에 밟혀 완전히 먼지가 되는 것(131~34행)으로 표현되며, 당장은 모든 사람에게 선거권을 보장하는 보통선거에 반대하더라도, 결국에는 군주제와 귀족제의 완전 철폐, 과도한 부의 평준화, 땅의 재분배 등 현존하는 모든 제도를 완전히 뒤바꾸는 완전한 공화국을 지향해야 한다는 「철학적 견해」의 주장(41면)과도 부합되는 내용이다.

그런데 “무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덤”에서 나와 “이 격동의 세월을 비추는” “영광스러운 유령”(a glorious Phantom)의 존재다. 그것은 “혼돈”의 죽음을 넘어 들려오는 “기쁨과 두려움의 이 말들”(These words of joy and fear, 「가면극」 138행)과, “공인받지 않은 입법자”가 “시대정신”의 영감에 의해 뱉어내는 “말들”(「철학적 견해」 20면)의 다른 표현이다. 여기 등장한 “영광스러운 유령”은 펜트리치봉기 주모자 세명

의 죽음보다 샬롯 공주의 죽음을 더 많이 슬퍼하는 대중들을 향해 진정한 애도의 대상이 누구여야 하는지를 설파하는 셸리의 연설문 「샬롯 공주의 죽음에 관해 민중들에게 보내는 연설문」(“An Address to the People on the Death of the Princess Charlotte”)에 먼저 등장하는 표현이기도 했다.

영국의 자유의 주검을 천천히, 그리고 공손하게, 그 무덤까지 따라가자. 그리고 어떤 영광스러운 유령이 나타나면, 그래서 부러진 칼과 왕홀, 짓밟혀 먼지가 되어버린 왕관 위에 [새롭게] 옥좌를 만들게 되면, 우리 모두 이렇게 말하자. 자유의 정신이 천박하고 일시적인 것들을 모두 벗어두고 무덤에서 일어났노라고. 그러니 이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부활한] 자유의 정신을 우리의 [진정한] 여왕으로 숭배하겠노라고.⁶³⁾

펜트리치봉기의 지도자 3인이 사법당국에 의해 잔혹하게 처형을 당하면서 “영국의 자유”는 죽었지만, 그 자유는 셸리를 비롯한 개혁가들의 혁명이 성공하는 날, 먼지처럼 짓밟힌 구체제의 무덤에서 “영광스러운 유령”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것, 즉 개혁운동가들이 사법당국의 폭력에 굴하지 않고 자유를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으면 언젠가는 새롭게 부활한 “자유”를 진정한 군주로 섬길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것이 이 산문의 논지였다. 셸리는 2년 후 “영국의 자유”가 훨씬 더 큰 규모로 훨씬 더 잔혹하게 살해당하는 참사가 일어났을 때, 민중에게 바치는 이 절박한 시적 헌정에서 똑같은 “영광스러운 유령”을 다시 한번 소환했다. 그것은 피털루학살과 같은 암담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자유”의

63) Percy Bysshe Shelley, *The Complete Works of Percy Bysshe Shelley* 7, ed. Roger Ingpen and Walter E. Peck (London: Ernest Benn, 1965) 82면.

“영광스러운 유령”은 언제나 되살아나며, 그 “유령”이 예언하는 완전한 “자유”의 공화국도 언젠가는 반드시 실현될 수 있다는 희망을 민중들의 마음속에 굳건하게 심어놓기 위해서였다.

England in 1819: Peterloo and Shelley

PARK Chankil

1819 is remembered as the year of Peterloo in British history. Peterloo was the worst massacre of unarmed civilians committed by the government in modern Britain. 1819 was also “a miraculous year” for the Romantic poets such as Shelley, Byron, and Keats because it was during this year that they composed or published a lot of their major poems: *Prometheus Unbound*, “Ode to the West” by Shelley, the first two cantos of *Don Juan* by Byron, and his famous odes and “The Eve of St. Agnes” by Keats. This paper is an attempt to explain why the year 1819 became such a decisive moment in the political history of modern Britain as well as in the movement of British romanticism. My argument is that it was basically the same *Zeitgeist* of the 1810s that gave rise to both occurrences. It was “the spirit of age” of that decade defined by Hazlitt as “the progress of intellectual refinement, warring with our natural infirmities.” John Stuart Mill redefined it a few years later, in Patrick Story’s phrases, as “a transitional process of fearful conflict between the tide of progressive expectations reawakened

by international peace, and the opposing reaction of ‘existing institutions’,” which I think is more useful for me to collocate Peterloo and the prolificacy of the romantic poets in a historically significant manner. There has been no serious objection among historians to E. P. Thomson’s view that Peterloo was “a formative experience” in the history of modern Britain. Peterloo, then, is the most indubitable expression of the “fearful conflict” between the “progressive expectations” and “the opposing reaction” in the 1810s. Shelley, in this context, is making an ideal case of poetically embodying the ‘spirit’ of the year 1819 since he composed “The Mask of Anarchy” and “A Philosophical View of Reform” right after Peterloo as a reaction to the unprecedented government brutality from a reformer’s point of view. In this paper, I analyse those two works to illuminate Shelley’s earnest commitment to the cause of the British reform movement of the 1810s.

Key Words: 1819, Peterloo, Shelley, The Spirit of the Age, The British reform movement, The Mask of Anarchy, A Philosophical View of Reform, England in 1819

Submitted: Oct. 17, 2019

Reviews Completed: Oct. 21, 2019

Accepted: Oct. 25, 2019

반년간 영미문학연구 안과밖

제47호/2019 하반기 ©영미문학연구회 2019

발행인/윤지관

편집인/유선무

발행소/영미문학연구회

제작·공급/(주)창비

발행일/2019년 11월 15일

주소/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184

전화/031-955-3333

팩시밀리/031-955-3399

홈페이지/sesk.net · www.changbi.com

전자우편/inoutsesk@naver.com · human@changbi.com

지로번호/3002568

©영미문학연구회 2019

All rights reserved including the rights of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 in any form. Printed in Korea

*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한다.

ISSN 1226-3761